



스페인 : 노동시간, 주 4일제로 갈 것인가?

정인철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교 현대사학과 박사과정)

■ 머리말

2023년 7월 23일 스페인에서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주 4일 노동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스페인의 주 4일 노동에 대한 논의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의 알폰소 게라가 일자리 나눔 차원에서 32시간 노동제를 제안한 바 있다.¹⁾ 또한 2022년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발렌시아에서는 “주 4일 노동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²⁾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 32시간제 또는 주 4일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논의하는 만큼, 스페인의 노동시간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8시간 노동 법제화 과정 등 스페인 노동시간의 제도적인 측면과 현실을 살펴본다.

1) Diario Público, “Guerra propone una semana laboral de cuatro días para crear empleo”, 2013.4.18.

2) El Diario, “Cumbre en València sobre la semana laboral de cuatro días: “La aplicamos y ahora somos más productivos””, 2022.5.27.

■ 스페인 노동시간의 법제화

노동시간이란 피고용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또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언제부터 8시간 노동이 법제화되었는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16세기에 이미 법률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펠리페 2세가 제정한 칙령 제6조에서는 “요새와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씩 하루 8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기술자가 가장 편리한 시간에 따라 시간을 배분하여 노동자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건강과 안위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³⁾

그러나 노동시간 법제화 시점을 16세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노동시간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산업사회가 도래한 이후로 봐야 할 것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부 서구 국가에서 노동운동과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압력으로 말미암아 8시간 노동이 법으로 규정되었다. 스페인에서도 1919년 2월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캐나다계 전기회사인 라 카나디엔세에서 노동자 8명이 해고되면서 촉발된 노동자 파업으로 8시간 노동 법제화 요구가 절정에 이르렀다. 잇따라 노동자 파업이 벌어지면서 바르셀로나 공장의 70%가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1919년 4월 3일 국왕의 칙령으로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이 확립되었다. 이로써 스페인은 유럽 최초로 8시간제를 도입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⁴⁾

■ 제도로 보는 스페인 노동시간

스페인의 정규 노동시간은 기본적으로 「입법 칙령 1983년 2001호」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⁵⁾ 이 법률에 따라 주당 정규 노동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규정된다.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의 합의에 따라 휴식시간을 존중하면서 일일 노동시간을 재배치하지 않는 한, 통상

3) COPE, “La historia sobre cómo el Rey Felipe II inventó la jornada laboral de ocho horas”, 2021.11.19.

4) La Razón, “El origen de la jornada laboral de ocho horas”, 2022.2.18.

5) 법령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boe.es/eli/es/rd/1983/07/28/2001/dof/spa/pdf>

노동시간은 하루에 9시간을 넘길 수 없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정부는 노동부 담당관의 제안과 노조 및 사용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의 조직 및 노동시간 연장 또는 단축 등에 대해 특수성을 설정할 수 있다.

스페인에는 법률상 9개 유형의 노동시간이 있다.

- 1) 전일근무(Jornada laboral de trabajo completa):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설정된다. 사업 유형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노동시간을 재분배할 수 있다.
- 2) 반일제 또는 부분 근무(Media jornada o jornada a tiempo parcial): 주 30시간 이하의 노동을 가리킨다.
- 3) 시간제 근무(Jornada laboral parcial): 파트타임 노동이라고도 하며 주당 특정 노동시간이 규정된다.
- 4) 단축근무(Jornada laboral reducida): 자녀 양육이나 노인 부양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종의 특수한 노동시간이다.
- 5) 연속근무(Jornada en horario continuo): 노동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시간을 일컫는다. 노동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할 수 있지만 항상 15~30분의 휴식이 있어야 한다.
- 6) 분할근무(Jornada en horario partido): 연속근무와 달리 분할근무는 최소 1시간의 노동 중단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스페인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7) 휴일근무(Jornada de trabajo en festivos): 공휴일과 주말에만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유형이다.
- 8) 야간근무(Jornada laboral nocturna): 노동시간이 연속적이고 야간, 즉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노동형태이다. 이 경우 노동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임금과 휴가 이외에 별도의 휴가와 상여금을 받는다.
- 9) 교대근무(Jornada en trabajo por turnos): 노동시간이 주 단위로 오전, 오후, 야간으로 순환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어떠한 노동자도 2주 이상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 없다.

노동법에 따르면 연속 6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최소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식시간은 단체협약과 고용계약에서 규정된 경우 유효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다만 예외

가 있는데, 18세 이하의 노동자는 일일 연속 노동시간이 4시간 30분을 초과할 때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법은 두 노동일 사이에 최소 12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불규칙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교대근무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휴식을 변경할 수 있으나, 휴식시간이 단축될 경 우 단축된 휴식시간보다 짧지 않은 대체휴식으로 보상해야 한다.⁶⁾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스페인 전통의 낮잠시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시에스타는 내전 이 후 식량부족으로 인해 남성 노동자들이 오전 8시에 일을 시작하여 오후 2시까지 일한 뒤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고, 다른 일자리에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관행에서 유래했다. 스페인의 직장에서는 60~120분 사이의 점심시간을 포함한 시에스타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노동시간에 포함시키면 노동자가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9~10시간에 이른다. 그 러나 많은 외국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낮잠시간이 세 시간인 것은 아니라고 스페인 사람 들은 항변한다. 실질적으로 낮잠시간은 중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더운 시간을 효 과적으로 견디기 위해 시행하는 15~30분 사이의 짧은 수면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편견과는 달리 대다수 노동자의 삶은 시에스타와 거리가 멀다. 2009년 스페인 산카를로스 병원의 조사 에 따르면 스페인 노동자 중 58.6%는 자지 않고 22%는 가끔 수면을 취하며, 3.2%만이 점심식 사 후 잠에 든다고 응답했다.⁷⁾

■ 스페인 노동시간의 현실

스페인 외부에서는 스페인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 스스로는 스페인을 유럽에서 많이 일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 노동자는 2022년 평균 1,643.6시간 일했다. 이는 전년(1,623.5시간)과 비교해 1.24% 증가한 것이며, OECD 평균(1,751.6시간)보다 낮고 EU 평균(1,570.8시간)보다는 높다.⁸⁾

6) El Debate “¿Cuánto tiempo de descanso te tiene que dar la empresa si tu jornada laboral es de 8 horas?”, 2023.5.19.

7) El Mundo, “¿‘Tres horas de siesta’? Desmontando los tópicos de la prensa internacional”, 2016.4.6.

8) OECD(2023), “Hours Worked”, <https://data.oecd.org/> (2023.10.20).

<표 1> EU 전일제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2014~2022년)

(단위 : 시간)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EU 평균	41.4	41.2	41.1	41.0	41.0	40.9	40.6	40.5	40.5
스페인	41.6	41.4	41.2	41.0	40.9	40.6	40.4	40.2	40.4
그리스	44.2	44.4	44.6	44.3	44.1	43.8	43.7	43.2	42.7
핀란드	40.0	40.0	40.1	40.1	40.2	40.2	39.9	38.9	38.7
독일	41.5	41.4	41.3	41.1	41.0	40.9	40.5	40.5	40.4
프랑스	40.5	40.4	40.5	40.4	40.4	40.4	40.3	39.9	40.0
이탈리아	40.4	40.5	40.5	40.7	40.7	40.7	40.3	40.6	40.5
포르투갈	42.7	42.3	42.0	41.9	41.7	41.7	41.2	41.3	41.3
스웨덴	40.7	40.7	40.7	40.6	40.6	40.6	40.4	41.6	41.6
오스트리아	42.9	42.8	42.8	42.7	42.5	42.3	42.1	41.8	41.7
폴란드	42.4	42.2	42.1	41.9	41.8	41.7	41.4	41.3	41.3
키프로스	42.3	42.3	42.2	41.9	41.6	41.5	41.2	41.3	41.5
슬로베니아	41.8	41.6	41.4	41.4	41.4	41.4	41.2	41.3	41.1
체코	41.8	41.8	41.7	41.7	41.7	41.5	41.3	40.7	40.9
룩셈부르크	40.8	40.8	40.9	40.9	40.6	40.6	40.3	41.1	40.9
몰타	41.3	41.5	41.4	41.4	41.6	42.1	41.9	41.2	40.9
루마니아	40.6	40.5	40.5	40.4	40.3	40.4	40.3	40.5	40.5
벨기에	41.3	41.4	41.3	41.2	41.0	41.1	40.9	40.5	40.4
불가리아	41.2	41.2	41.2	41.1	41.0	40.8	40.7	40.6	40.4
아일랜드	40.2	40.3	40.3	40.5	40.6	40.6	40.3	40.1	40.4
크로아티아	41.2	41.0	40.7	40.7	40.8	40.8	40.7	40.6	40.4
헝가리	40.9	40.9	40.7	40.6	40.5	40.5	40.3	40.4	40.3
슬로바키아	41.7	41.6	41.4	41.2	41.1	41.2	40.9	40.2	40.2
에스토니아	40.8	40.8	40.6	40.5	40.6	40.5	40.4	40.2	40.1
라트비아	40.5	40.6	40.5	40.4	40.4	40.3	40.3	40.1	40.1
리투아니아	39.5	39.7	39.7	39.9	40.0	40.0	40.0	39.9	40.0
네덜란드	40.9	40.8	40.9	40.8	40.8	40.7	40.4	39.4	39.4
덴마크	38.8	38.9	38.7	38.7	38.5	38.3	38.3	39.3	39.1

자료: Eurostat(2023), "Average Number of Usual Weekly Hours of Work in Main Job by Sex, Age, Professional Status, Full-time/Part-time and Economic Activity (from 2008 onwards, NACE Rev. 2)", <https://ec.europa.eu/eurostat/> (2023.10.26).

Eurostat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5~64세의 스페인 전일제 노동자는 주당 40.4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는 주 42.7시간으로 EU에서 전일제 노동자가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국가이다. 반대로 가장 적게 일한 국가는 핀란드로 38.7시간이었으며, 이는 EU 회원국 사이에 최대 4시간의 노동시간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슷하게 EU 평균 노동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4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노동자는 교사(37.1시간)와 국방 및 공공서비스 공무원(37.6시간)이지만, 최근 들어 이들의 노동시간은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⁹⁾

스페인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스페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팬데믹 이전보다 1시간 정도 단축되었으며, 특히 노동시간 감소는 사회적 접촉 및 상업 관련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간 감소는 고령화, 서비스 산업 및 비정규 노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¹⁰⁾

2023년 들어 많은 기업체가 노동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3년 4월 스페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패키지를 관보에 공시했다.¹¹⁾ 이에 따라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는 총 965만 유로의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주당 노동시간을 최소 10% 단축하는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다. 노동자 21~249인의 작업장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25% 이상이 노동시간 축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20인 이하 작업장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30% 이상이 노동시간 축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은 24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급여 보조비용을 상쇄하는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는 조직 개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¹²⁾

고용 플랫폼 중 하나인 인포잡스(InfoJobs)에서 실시한 주 4일 노동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

9) Newtral, “La semana laboral en Europa: de las 42,7 horas de media en Grecia a las 38,7 de Finlandia”, 2023.9.25.

10) The Objective, “España reduce su jornada laboral: ya se trabaja una hora menos que antes de la covid”, 2023.2.25.

11) BOE(2023), “V. Anuncios”, Boletín Oficial del Estado, Núm. 88, 13 de abril de 2023, Sec. V-B. Pág. 16734.

12) RTVE, “Las pymes de hasta 250 trabajadores que reduzcan a cuatro días la jornada laboral sin tocar los salarios tendrán ayudas del Gobierno”, 2023.4.13.

면, 응답자의 62%는 급여 손실 없이 동일한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주 4일 노동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중 40%는 급여가 삭감될 경우 주 4일 근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22%는 그래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4일 노동에 대한 지지도는 35~44세의 응답자에서 높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조화 때문에 주 4일 노동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¹³⁾

최근 수마르당의 당수이자 노동부장관인 올란다 디아스는 주 4일 32시간 노동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임금 삭감 없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 37.5시간을 노동법에 명시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32시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협상해야 할 사항이기도 했으며,¹⁴⁾ 1983년 펠리스 곤살레스 정부가 주당 최대 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한 이래로 40년 만에 법적 노동일을 단축하여 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고자 한 제안이었다.¹⁵⁾ 여기에 반대하는 이들은 스페인 응용경제연구소(FEDEA)의 연구¹⁶⁾를 근거로 법제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발적인 노동시간 축소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총선 국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연금 및 고용 문제에 밀려 노동의제에서 크게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스페인의 노동시간 축소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문제임은 틀림없다.

13) La Razón, “El 62% de los españoles se acogería a la semana laboral de cuatro días sin pérdida de sueldo”, 2022.12.13.

14) 수마르당 총선공보물 p.38. 공보물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movimientosumar.es/wp-content/uploads/2023/07/Un-Programa-para-ti.pdf>

15) Público, “Sumar quiere rebajar la jornada hasta las 37,5 horas cuatro décadas después de que se aprobaran las 40 horas semanales”, 2023.7.31.

16) Conde-Ruiz, J. I. and J. L. Forteza(2023), “Retos Futuros del Mercado de Trabajo en España”, <https://documentos.fedea.net/> (2023.10.23).

17) Libre Mercado, “¿Llegará la semana laboral de 4 días? El error de Sánchez, Yolanda Díaz y Errejón”, 2023.9.5.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스페인 노동시간의 제도화 과정과 현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스페인은 8시간 노동을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법제화한 국가 중 하나이다. 스페인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법제화되어 있지만 휴가제도나 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변수가 있다. 최근 들어 일각에서는 32시간 노동제 역시 고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와 생산성 문제가 노동시간 축소에 큰 걸림돌로 여겨진다. 스페인에서 노동시간 문제는 당장의 뜨거운 감자는 아닐지라도 장기적인 견지에서 봐야 할 문제임은 확실하다. 한국 사회에서도 노동시간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만큼 스페인과 유럽의 사례가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LI**